"모순된 도시계획위 조례안 통과 유감"

강 시장 "회의 공개 규정에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
공익·공정성 침해할 경우 등 5개 단서, 비공개 할 이유 열어놔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1일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이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2, 3호 단서 조항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강 시장의 주장이다.

강 시장은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아니면 더 숙성시켜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의 요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 검토 의견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등이 있게 된다"며 "다른 시도는 (지방의회 원 구성이) 균형을 이뤄 치유, 수정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하나의 당으로 구성된 광주에서는 다른 문제"라며 광주시의회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안이고, 시장도 공개 방침에 동의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만 남은 문제를 마치 광주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왜곡된 점도 유감"이라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숙성의 과정, 수정의 과정을 거치자는 게 무리인 건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 등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원안 의결했지만,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예외 및 단서 조항으로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민 축제 '북구 아트페스티벌'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하는 북구 아트페스티벌이 1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광장에서 개막했다. 참석자들이 행진곡에 맞춰 전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비엔날레 전시관 5관에 마련된 아트페스티벌은 주민들이 기획한 기후변화, 도시재개발, 사라진 자연 등을 내용으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공모

다음달 6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신축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를 국제 공모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국제 수준의 설계를 공개 모집한다.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가 등록은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누리집(http://www.gj-biennale.org)에서 할 수 있다.

등록자에 한해 11월 20일 오후 5시까지 현 비엔날레전시관 제5전시실에서 공모안을 접수하고 기술 검토, 설계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에는 설계권, 입상작에는 설계보상비를 준다.

전시관은 북구 매곡동 현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118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2276㎡(전시관 2만2776㎡, 주차 면적 9500㎡),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의회 '수산업 대책' 등 현안 질문

내일까지 임시회…의료 취약지 개선방안 등 따져

전남도의회가 '제 374회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전남 수산업 보호 대책과 섬 지역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개선 방안을 언제쯤 마련할 계획인지 여부를 따져 묻는다.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키로 광주시와 서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전남도의 판단 착오에 대한 비판도 예고된 상태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 15명은 12일과 13일 '제 374회 임시회' 기간 중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도정질문에 나설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전남지역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조옥현 의원), 섬 지역 간호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방안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 방안(최미숙 의원)과 소아 의료 대란 해소방안(장은영 의원),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음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이유(임형석 의원), 교권 보호대책(최정훈 의원), 교장실 인테리어 등으로 전락한 스마트팜 교육 활용 방안(김호진 의원), 답답한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박선준 의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 행태를 묻고 대책 등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남이 국내 최대 수산 지역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 예산(국비 402억)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전남 행복시대'를 외치면서도 수년째 소아 경증환자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에도 병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이 없는 전남지역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부도 팩트 체크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일각에서는 질문 대부분이 전남의 최대 현안이면서도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칫 명확한 실정 분석과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허한 보여주기식 질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전시존 기본 계획안 발표

전남도, 전문가 워크숍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2025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인류미래관을 비롯한 주요 전시존과 아시아 그릴마스터 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구상했다.

워크숍에서 민승규 세종대 교수는 가칭 '인류미래관, 농업미래관, 농업글로벌관, 농업혁신관, 농업일상관, 농업이터테인먼트(eat+entertainment)관, 농업홍보관 등 전시존과 아시아 그릴마스터 대회 등 3대 이벤트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 유창균 목포대 교수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정량적 성과를 고려한 목표 설정, 전략계획, 실행과제, 이벤트·전시 체계를 부각하고, 10년 후 자립형 박람회 방안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콘텐츠 부문 협업을 제시했다.

이재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운영부장은 젊은 층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주제 발굴 및 코이카, 코피아 등이 참여하는 농산업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가한 8대 전시존 구성을 제안했다. 박관수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산물 수출 국가가 아시아가 많으므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농산업을 부각하자고 제안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2025 국제농업박람회 슬로건을 '케이(K)-농업, 아시아 농업에 빠져들다'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국제행사 6회째를 맞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상승효과를 내기 10월 12일부터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전 경기 시작 … 전국체전 열기 '후끈'

핸드볼 등 5개 종목 진행

제 10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전 경기가 시작되면서 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핸드볼, 볼링, 배드민턴, 하키, 당구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국체전 사전 경기가 6개 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제 10조)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 사전 경기가 진행된다. 5개 사전경기 종목은 핸드볼(무안종합스포츠파크·8월23일), 볼링(목포대화볼링장·9월15일), 배드민턴(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10월 9일), 하키(목포하키장·10월10일), 당구(목포해양대·10월11일) 등이다.

올해 전국체전의 경우 내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맞물리면서 이들 종목의 진행이 어려워 사전 경기로 치러진다.

전남도는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경기장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7월부터 2개월 동안 추가로 민·관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올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